

조계종, 분단 70년 맞아 '불교통일선언' 추진

민추본 18일 불교통일담론 개발 중간 발표회서 밝혀

공존과 상생, 합심을 기치로 한 불교통일 선언이 이르면 5월께 발표된다. 이로써 내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통일문제에 관한 조계종단의 입장과 방침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종단은 이를 위한 불교통일담론 개발작업에 착수,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사회통일론을 선도할 계획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는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존과 상생, 합심의 불교통일담론 연구사업'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부·실장 스님,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 민추본 임원들이 참석했다.

불교통일담론의 주요 내용은 화쟁사상에서 통일원리를 찾고 공존과 상생을 중심으로 남북이 합심해 통일을 이루어나가자는 것이다.

지난 10월부터 관련 연구사업에 참여한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은)는 "화쟁통일론의 핵심은 이문일심(二門一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남북간 합심이 통일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론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조 박사는 합심의 저해요소로 남북사회의 이질성과 서로의 불신, 적대감 등으로 인한 '마음의 분단'을 꼽으며 "정치화해, 평화체제 구축 등을 통한 공존조치와 문화재 공동발굴, 경제협력, 이산가족상봉 제도화 등의 상생조치를 통해 남북간 이질적 마음문화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사업에는 이창희 교수(동국대, '최근 불교 통일운동의 역사적 흐름과 논리'),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한국 전통 불교와 마음의 통일'), 조성렬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공존·상생·합심의 불교통일담론'), 고유환 교수(동국대, '불교계 통일준비와 실천적 역할')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남북불교간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왔지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12월 18일 불교통일담론 연구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 5월경 발표... 관련 담론연구

공존·상생 골자로 한 통일론 전망

종단 통일 이론·실천적 지침 될 것

종도·불자·국민 확산 사업 계획도

만 불교통일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방법론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 지홍 스님은 이번 사업을 두고 "통일에 대한 불교의 이론·실천적 지침을 세우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추본은 이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불교통일선언 초안 마련을 시작해 중앙종회 본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추진한 후 5월 불교통일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는 사찰 불교대학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채택, 실천 캠페인과 함께 추진하고 앞으로 민추본의 남북불교교류 사업 역시 통일선언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4년 전 평양 방문 당시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이질감 해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존과 상생을 벗어나 유불리를 따지면 통일과 멀어진다"는 기본 원칙을 스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유환 교수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분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소모적 대립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통일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고 교수는 "중앙권력 중심의 통일 담론을 넘어 민간차원에서 이런 작업을 선도해 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에서도 평양에 학교와 병원, 문화회관 등 하루속히 거점을 마련해 교류 사업 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쌍용차 해고자 대승적으로 품어야"

노동위, 15일 쌍용차에 호소

지난 12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이창근, 김정옥 씨가 평택 쌍용차 공장 70m 굴뚝 위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이 씨는 "사법부도 정치권도 모두 쌍용차 정리하고 문제에 등을 돌렸기에, 마지막으로 현재 공장서 일하고 있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고 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도 12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생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는 노동자들의 소망을 이제는 회사, 사회, 정치권, 종교인이 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위는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기위해 고통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야기한 존재임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라며 쌍용차를 향해 "극한적, 대립적, 배타적인 생각으로 해고노동자들을 대하지 말고 그들을 대승적으로 과감히 포용하는 경영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회사 경영과 이미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게도 "쌍용차 노조, 국민들에게 했던 공약을 지금이라도 되새겨 실천 해 나가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현진 기자**

"비구니회 現 집행부 사퇴하라"

열린모임 18일 공청회서... 결의대회 개최도 천명

제16대 조계종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선출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비구니회의의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비구니모임은 12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한국 비구니의 청정성 회복과 승가상 확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비구니회 총회 소집과 집행부 사퇴, 비구니 종회의원 재선출"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 법통사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참석자들은 결의했다.

첫 발제에 나선 열린비구니모임 공동위원장 임대 스님은 "비구니 종회의원 추천 과정은 말그대로 파행이었다"면서 "모든 절차가 생략됐고, 운영위원들은 어떤 스님이 몇 명이나 후보등록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선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비구니회 내에 산재해 있는 차별과 비합법적인 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전국비구니 스님들의 공의를 모아 회칙 제정등을 추진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지회 재무 재범 스님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표도, 거수도 없이 종회의원을 선출했다. 현재 비구니회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만 남아 있다"

고 토로했다.

삼선불학습가대학원 학과장 수경 스님은 전국비구니회회가 발표한 '발전계획안'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발전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 예로 '비구니 스님 주지 품수 시 전국비구니회장의 추천서를 받도록 한 것'과 '법통사 주지를 운영위원 가운데 선출하고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등록권을 운영위원회에만 부여하도록 한 것'을 들었다.

수경 스님은 "비구니회가 종단의 주지 품수까지 관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나"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다수 비구니 스님들에게 이중 족쇄가 될 것이 자명하다. 전국비구니회 현 집행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직후 열린비구니모임은 "비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비구니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전국비구니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총회 개최 △전국비구니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 사퇴 △비구니 종회의원 재선출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매서운 추위에도 250여 명의 비구니 스님이 동참했다.

신성민 기자 mtp79@hyunbul.com



조계종은 12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열고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예수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가자"

조계종, 17일 조계사 앞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계사에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트리가 불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1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열고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하얀 빛 가득히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린다"며 "2014년 오늘, 예수의 이름은 희생과 사랑

이다. 대한민국의 아픔인 세월호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고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다시 세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부모와 형제, 이웃은 모두 부처와 같이 대하며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내 자신을 예수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점등식에 이어 산타 복장을 한 조계사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밖을 보라' '루돌프 사슴고'를 합창했으며, 참가자들도 합창단의 노래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점등식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총무실장 등이 참가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자비나눔의 일환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각각 2000만원 상당의 영·유아 용품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승려복지 지원나선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박종수)는 12월 13일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송년회를 열고 2015년에 진행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동국사, 노적사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30여개 사찰 신도회장 및 부회장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수 직할교구신도회장은 개회사에서 "직할교구신도회는 전국 교구신도회의 모범이 돼 수도권을 대표하는 내실 있는 신도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2015년에는 중점적으로 계획한 승려복지, 나란다축제, 천진불어울림한마당 등의 지원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할교구신도회는 승려복지 지원을 위해 내년 2월 경 직할교구신도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열리는 나란다축제와 천진불어울림 한마당에 전국 사찰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제6회 이수예 개인전

아름다운 빛깔 단수경

범어사 대응전 단청

lee su yea the 6st Solo Exhibition

2014. 12. 24. - 30.

• 오픈식 : 12/24(수) 오후 3시

축하공연·연주

장소 _ 서울 종로구 관훈동 188번지 **가나인사아트센터** ☎ 02)736-1020

후원 _ 선찰대보산 금정총림 범어사

주관 _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02)462-9994

